

## 광주·전남 기업들, 새해에도 경기 불확실성 '여전'

### 한국은행 '기업경기 조사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소폭 상승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하락세  
내수부진·원자재값 상승 등 우려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비제조업체는 내년 1월 기업경기업황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업황 전망은 제품 재고 수준과 설비투자 실적, 인력 사정 등을 분석해 산출한

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12월 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전월대비 6포인트(p), 내년 1월 전망은 64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

업황 BSI는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으로 답한 업체 수가 부정으로 응답한 업체 수보다 많고 기준치 이하는 그 반대를 뜻한다.

12월 제조업 생산 BSI는 76으로 전월보다 2p, 내년 1월 전망은 76으로 1p 상승했다.

제조업 매출 BSI는 82로 전월대비 16p 올랐으나 다음달 전망은 70으로 2p 하락했다.

제조업 자금 사정 BSI는 80으로 전월 대비 8p 상승했고 내년 1월 전망은 73으로 전월보다 2p 높았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17.6%), 내수 부진(17.3%), 인력난·인건비 상승(9.1%), 경쟁 심화(8.7%), 원자재가격 상승(6.7%) 순 등으로 높았다.

12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63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다음달 전망은 58로 전

월보다 5p 하락했다.

비제조업 매출 BSI는 69로 전월대비 4p 하락했으며 내년 1월 전망은 62로 8p 떨어졌다.

비제조업 자금 사정 BSI는 66으로 전월보다 7p 하락했고 다음달 전망은 62로 전월대비 7p 올랐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25.6%), 인력난·인건비 상승(19.3%), 불확실한 경제 상황(12.2%), 자금 부족(10.5%), 경쟁 심화(8.1%), 원자재가격 상승(4.7%) 순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지역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601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으며 540개 업체(제조업 255곳·비제조업 285곳)가 응답했다.

제조업은 식재료,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중화학공업, 기타 경공업 등 9개 업종, 비제조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기타 비제조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전분주택 오픈

대우건설은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전분주택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지하3층~지상29층 6개동 560세대 규모로, 84㎡(A, B, C, D 타입) :210세대, 111㎡(A, B, C 타입) :350세대로 구성돼 있다.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2021년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착공됐으며, 12월 기준 약 80% 이상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단지 내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멀티룸 등이 제공되며,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 1월 3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며, 1월 14~16일 계약을 진행한다.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KTX 순천역세권으로 순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변 쇼핑, 문화, 교통 인프라와 연결돼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쇼핑 시설과 메가박스 같은 문화 시설은 물론 순천시 전역을 10~2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있다. 순천 동천변, 순천만 국가정원 등도 도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시작으로 순천도 브랜드 아파트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푸르지오가 지향하는 고객 만족에 대한 노력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선보일 품격 있는 주거 공간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순천시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현대차·기아, 탄소 규제 대응 '완성차 생애주기 관리'

생애주기 전 과정 탄소배출 관리  
관리시스템 통합...업무효율 증대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IGIS)'을 구축하고, 탄소배출량 관리를 강화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IGIS는 원소재 채취부터 제조, 수송,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완성차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IGIS는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요구가 확대되며 국제 협약과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더욱 광범위한 탄소 배출원 관리 필요성을 위해 개발됐다.

기존에는 자사 사업장에 연관된 배출량만 관리해 왔지만,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 경제 활동 영역 전반의 배출량을 관리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간접 규제[1] 대상이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도 직접 규제[2]로 강화돼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진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GEMS) △협력사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시스템(SCEMS) 등을 구축해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의 탄소 배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IGIS)'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를 강화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출량을 관리, 대응해왔다. 이번에 새로 구축한 IGIS는 기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더해 차량과 기업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출, 관리할 수 있는 '완성차 전과정 평가' 기능이 추가됐다.

현재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부품 제조 과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 '완성차 전과정 평가'를 적용하면 자동차 생애주기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정별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여러 유관 부서들이 개별 시스템을 활용하던 복잡한 관리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시스템 연동을 통한 업무 자동화도 가능하다.

더욱이 현대차·기아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IGIS에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했고,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른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